

○● 특 집 민관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읽는도시 김해’ 를 만들기 위한 김해시의 민관협력

Special Issue



조강숙

김해시 평생학습지원과 도서관정책팀장
ocratess@gimhae.go.kr

지난 2007년 8월 1일 김해시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책읽는도시 김해』 만들기 협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도대체 어떤 계기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여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와 비영리법인이자 시민운동단체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협약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밝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1. 추진동기 및 경과

2006년 겨울, 시립도서관인 칠암도서관과 장유도서관의 사서들이 모여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여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사업”이란 주제로 공공건물 내 산재하는 작은 문고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22개소의 주민자치센터, 정보화마을, 문화의 집 등에 소재하는 작은도서관은 도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전담인력이 부재하며 연간 1

회의 도서구입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조사 결과를 2007년 1월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고 싶었으나 보고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 결국 사장되고 말았다. 또한 신설되는 도서관의 설계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 반영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서관 개장 이후 이용불편사항을 해결할 길이 없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2007년 2월 우연한 기회에 칠암도서관을 방문하신 부시장님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2007년 3월 부시장님 지시로 시립 도서관의 사서직원과의 간담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본청 내 ‘도서관 정책 담당 부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후 기획예산과의 정책개발팀에서 4월 초 일본의 자치단체와 순천시를 견학한 후 『책읽는도시 김해 만들기』라는 정책을 시장님께 제안하게 되었다. 시장님께서는 고등학교가 최종 학력 이지만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향토사학자로서 책 읽는 도시라는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셨고, 이

일을 계기로 2007년 5월 22일 실국장님과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다 모여 『책읽는도시 김해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책이 채택되면서 『책읽는도시 김해 만들기 T/F』를 구성 운영기로 결정하였다. T/F에는 정책개발담당과 양대 시립도서관의 열람담당, 평생학습지원과의 평생학습담당이 실무자가 되고 각 소속 과장님이 동시에 팀원이 되면서 총무국장님이 팀장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책읽는도시 김해”(이하 “책도시 김해”로 약칭)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더구나 시장님 임기 이후 이 정책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고 공신력 높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앞으로 ‘책사회’로 약칭)과 협약을 하여야겠다고 제안하였고 협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라는 결재권자의 승인 하에 2007년 5월 25일 드디어 서울에 있는 ‘책사회’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2. ‘책사회’와의 협약과 10대 공동추진 시책

“책사회”를 방문하여 김해시의 도서관 현황과 “책도시 김해”를 정책으로 채택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도서관 건립 계획과 통합도서관 정책 등을 설명하였다. 우리 김해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으로서 학벌주의사회에서 고졸의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을 배출한 특별한 도시로서 김해시야말로 비학벌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책사회”와의 협약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다.

이후 6월 5일 기획예산과장님과 함께 양대

도서관 열람담당이 수행하여 “책사회”를 2차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책사회” 쪽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시작하여 6월 15일 “책읽는 도시의 비전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공무원과 “책도시 T/F” 구성원, 미래산업담당 등 김해시청 내 “책도시 김해”가 추구하는 비전을 공유하여야 할 직원들을 대상으로 “책사회”의 안찬수 사무처장 주제 하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정책이 왜 이 시점에서 김해시의 주요정책이 되어야 하는지를 공감하고 “책사회”라는 전국적으로 기적의 도서관 건립으로 지명도가 높은 도서관운동 시민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는지를 공감하게 되었다.

2007. 7. 12. 도서관 현장에서 도서관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 여성단체, 시의원, 교수, 독서회 회장, 문인협회장, 문화원장님 등 각계 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책사회” 안찬수 처장님의 사회로 “무엇이 책 읽는 도시인가”를 주제로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말 일선의 학교도서관 운영의 절실한 문제점과 기대, 작은도서관의 문제점, 도서관 이용객으로서 공공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바람, 김해시 재정에 부담주지 않으면서 알차게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대안 등 기탄없는 의견이 속출하였다.

2007. 7. 23. 다시 한 번 각계각층의 시민대표와 시의원, 도의원, 기관장을 모시고 “책도시 김해 T/F”에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지금 시점에서 김해시가 제대로 된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또 다른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설명 드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을 당부하게 되었다.

이후 2007. 7. 31. “책도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007. 8. 1. “책사회”와의 역사적인 『책 읽는도시 김해 만들기』 협약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정일 책임는사회문화재단 이사장, 이용남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이소연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여희숙 도서관의친구들모임 대표, 안찬수 책임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등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고, 8.1~8.3(2박3일) 동안 김해시 관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도서관 현장을 공공도서관 사서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김해시의 도서관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매일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대한 뜨거운 토론을 밤늦게까지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인근 부산시의 도서관 운동가들도 오시고, 김해시 학교도서관

『책 읽는도시 김해』만들기 협약서

경상남도 「김해시」와 비영리법인 「책 읽는사회문화재단」은 김해시의 독서문화와 도서관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책읽기 문화운동을 전개하여 배려와 성찰이 있는 시민문화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동 협약하기로 한다.

1. 지식정보의 기반시설 구축과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상호 협력 하에 수립하고 추진한다.
2. 책 읽는사회문화재단은 계획수립 과정에 필요한 조사, 교육, 자문 등에 성실히 임하며, 김해시가 시행하는 독서문화 및 도서관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투여하도록 노력한다.
3. 김해시는 계획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와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협약서에 따른 10대 시책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책 읽는도시 김해” 종합계획 마련
- ② 민관 합동의 위원회 구성
- ③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 ④ 어린이전용 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 신축
- ⑤ 학교도서관 지원
- ⑥ 공동도서관 발전 도모
- ⑦ 대학도서관 발전 도모
- ⑧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인 북스타트 실시
- ⑨ 매년 정기적인 “책도시” 행사 공동개최
- ⑩ 김해시와 책사회의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 일선에서 일하시는 교사, 부모,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3. 정책 공유를 위한 노력

대내외적으로 협약식을 마친 후 김해시청 내 공무원들 내부에 왜 이 시점에서 책 읽는 문화를 통

한 발전전략이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8월 31일 한상완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님을 모시고 “간부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300여 명의 6급 이상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상완 위원장님의 도서관 문화체험과 자녀교육의 성공사례, 그리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정신문화가 한 단계 높아져야 하는데 그

『책읽는도시 김해』 선포문

오늘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김해시가 ‘책읽는도시 김해’로 거듭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책읽는도시 김해’를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책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는 책 읽는 시민의 양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며, 수준 높은 정신문화를 꽃 피우기 위해서는 책읽기 문화의 뿌리를 더욱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시민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책을 읽으며 지식과 지혜를 쌓음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해시는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행복도시, 교육도시, 기업도시의 비전은 책을 읽는 시민이 있을 때라야 가능하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시민들이 독서 활동을 펼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민들은 책 읽는 문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후원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는 진정한 자치를 실현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책읽는도시 김해’란 책읽기 문화에서 길러지는 윤리적 감각과 상상력과 정서의 힘을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와 성찰이 넘치는 도시일 것이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스스로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일 것입니다.

책은 단순히 종이에 찍혀 있는 잉크가 아닙니다. 책은 인간정신의 전망이며 사고의 매체이고 모든 진보와 문화발전의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 김해시민이 ‘책읽는도시 김해’를 선포하는 것은 김해시민의 위대한 족적이 될 것이며, 김해시민이 21세기 인류문화의 중심에 당당히 서는 일임을 확신합니다.

‘책읽는도시 김해’여, 책의 힘과 함께 영원하여라.

2007년 10월 6일

핵심이 도서관이라는 간곡한 설명과 김해시의 탁월한 정책선택을 칭찬하였다. 이날 이후 많은 공무원들이 내부 사이트에 있는 “책도시 김해”에 격려의 글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올려주었고, 실무자들에게도 전폭적인 격려와 지원을 보내왔다. 우리의 사기가 한껏 높아졌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9월 12일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축제에 “도서관정책”을 가지고 경상남도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다.

4. 향후 도서관 정책과 “책사회”와의 협력 내용

이렇게 김해시에서는 “책도시 김해”의 정책비전을 수립해 가는데 있어서 매단계 “책사회”와 정책비전을 설계해 왔고, 내부 공무원 조직원들의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김해시 관내 도서관 일선에서 일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까지 왔다.

그리고 2007. 10. 6 “책읽는도시 김해”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선포식에는 김종간 김해시장님을 비롯한 김해시의 여러 관계자와 한상완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관계자, 여희숙 도서관의친구들 모임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책사회”의 문화예술의 순회대사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특히 인기작가 신경숙님의 “신경숙과 리진이야기”와 고영옥 작가의 어린이 팬 사인회는 인기 만점이었다. 선포식에서 책읽는도시 김해를 선포하고 북스타트 발족을 선포하였다.

매 단계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섭외력을 능가하는 분들이 김해시를 방문해 주셨고, 칠암도서관

김해 북스타트 발족 선포문

아가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 아가들을 잘 키우는 일은 부모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북스타트는 생후 한 살 미만의 아기들에게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그림책은 부모와 아기를 이어주는 행복한 친교의 수단입니다.

북스타트는 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아가 양육의 책임과 경비를 부모들의 어깨에서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사회적 육아지원 사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뜻 깊은 북스타트가 이곳 김해에서도 출범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 10. 6.

김해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북스타트코리아

어린이자료실 재단장에 있어서도 마감자재에 대한 수준 높은 조언으로 인해 신나는 어린이실로 거듭나게 되었다.

5. 정책담당부서의 신설과 도서관 관련 주요정책 확정

2007. 10. 8. 드디어 도서관정책담당팀이 신설되었고 선포식 이후 도서관 정책관련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통합 도서관시스템 구축 : 공공도서관, 행정자료실, 작은도서관,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등에 대한 자료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통합 구축, 각 도서관별 회원 통합 및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도서관 이용규칙 단일화 및 1일 택배시스템 마련
- (2) 기적이 있는 기적의 도서관 건립
- (3) 작은도서관 건립: 기존 마을회관, 복지관 등 공공시설물 리모델링을 통해 10개소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책상, 의자, 서가, 안내테스크, 도서 등 도서비품 구입, 컴퓨터, 복사기, 팩스, 전화기, 냉·난방기 등 장비 설치
- (4)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건립: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과 학생공용도서관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원활용도를 높임.
- (5) 참 작은 도서관 설치: 버스승강장, 체육관 등 10여 개소에 참 작은 도서관 시설물 설치하여 대기시간 활용 책 읽는 분위기 조성
- (6) 북스타트 운동 전면적인 전개
- (7) 도서관 아카데미 운영: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도서관 관련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8) 학교 내 독서장려 프로그램 공모 등

이렇게 도서관 정책업무 설계는 “책사회”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 졌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기적의도서관”이라는 민관 협력 모델에 대한 높은 인지도가 있었기에 김해시에서도 민과 관이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도서관의 도시로서, 책 읽는 도시로서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향후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도서관운동이 활발히 일어나 그야말로 온 국민이 한 차원 진보하기를 바란다. 